

지역 소식통

정읍시 장애인복지관 스크린파크골프장 설치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 고평두리스포츠센터의 사회복지 시설 내에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스크린파크골프장이 설치 됐다.

스크린파크골프장은 이동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신체적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교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학수 시장은 "스포츠 활동을 즐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스크린파크골프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역 장애인들의 복지과 체육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스크린파크골프장은 고평두리스포츠센터 파크골프 프로그램 이용자와 장애인체육회 회원들에게는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소방서, 구급대원 폭언 폭행 피해 근절 홍보전개

부안소방서(서장 소철환)는 119구급대원의 폭행·폭언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119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73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여 가해자 중 80% 이상이 주취자이다.

특히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 행위를 한 경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부안소방서는 폭언·폭행 피해 발생 시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 직접 수사, 피해 직원 휴식 시간 보장 및 상담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소철환 서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행위"라며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부안=김석진기자

부안붉은노을축제, 11일 개막

레드와인페스타·제2회 붉은노을 동요제 등 풍성한 볼거리 준비 마쳐

와인, 제2 그리고 붉은 노을이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2024 부안붉은노을축제가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변산해수욕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부안붉은노을축제는 레드와인 페스타, 제2회 부안붉은노을동요제, 붉은노을 제즈페스티벌, 스카이 갤러리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체험거리가 마련돼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작년에 처음 시도돼 큰 호응을 얻었던 레드와인 페스타는 부안 오디와인, 세계와인, 낱알몰음료와 함께 셰프가 만든 고급요리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프리미엄 와인존으로 확장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196팀이 참가해 치열한 심사를 거쳐 25팀이 경쟁을 펼치는 제2회 부안붉은노을동요제가 12일 예선, 13일 결선이 치러진다. 치열한 심사를



거쳐 결선에 나온 만큼 어린이들의 노래 실력이 기대된다. 또한 변산해수욕장의 하늘을 수놓는

대형연과 야간에 펼쳐지는 LED연의 향연인 스카이 갤러리는 어른들에게는 어릴적 추억을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추억을 선물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육지에서가 아닌 바다 한가운데서 불꽃놀이를 진행할 계획이다. 새롭게 시도되는 '바다위 불꽃놀이'는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문 부안군 대표축제추진위원장은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분들에게 새로운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를 선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붉은 노을이 아름다운 부안에 오셔서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소중한 추억 많이 만들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10월 11일 개막식에는 존박, 편지가 13일 폐막식에는 박정현이 축하 공연을 진행한다.

/부안=김석진기자

“시민들 안전한 물 제공에 최선을”

정읍시, 수성근린약수터에 자외선 살균기 설치... 수질검사적합 판정

정읍시는 시민들이 더 깨끗한 약수터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수성근린정약수터에 자외선(UV) 살균기를 설치하고 수질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자외선 살균기는 미생물과 세균을 99.9% 이상 제거하는 효과적인 방식으로, 화학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기술이다. 이 장비는 약수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성 높은 음용수를 제공하는 데 기여한다.

설치 후 즉시 전복지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수질검사에서도 '적합' 판정이 내려져, 약수터의 물 위생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시는 약수터 운영을 재개하며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는 이번 자외선 살균기 도입을 통해 공공 음용수 관리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약수터를 비롯한 공공장소의 위생 관리에 지속적으로 힘을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약수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수질 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물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장애인복지관, 이동형 상상누림터 12일까지 운영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사)한국실감메타버스콘텐츠협회가 주최한 실감콘텐츠 체험공간 '이동형 상상누림터'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오는 12일까지 고평두리스포츠센터에서 이를 운영하고 있다.

이동형 상상누림터는 지리·문화적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들에게 복합문화체험을 제공하기 위한 이동형 실감 콘텐츠 체험관이다.

아곳에서는 현장에 있는 듯한 생생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다. 시네마판에서는 '드로잉아쿠아', '매직 캠퍼스'와 같은 인터랙티브 콘텐츠가 마련돼 있으며, 체험관에서는 시각·지체장애인의 일상생활을 가상현실(VR)로 체험할 수 있는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김곡면 주민 이모 씨는 학생들과 함께 상상누림터를 방문한 후 "현장감 있는 체험을 통해 생생한 감동을 느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있어 매우 만족스러웠다"고 체험 소감을 전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관계자는 "이동형 상상누림터를 통해 첨단 기술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장애인식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2일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플러마켓 앤 장애인식개선 캠페인'이 열리며, 다양한 장애인체험과 이벤트 체험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자전거 모범도시 조성 공모사업' 선정

국비 5억원 포함 총사업비 15억원 투입... 7가지 유네스코 보물 탐방 자전거 노선 구축

고창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4년 자전거 모범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고창군은 국비 5억원을 포함 총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해 7가지 유네스코 보물을 탐방하는 자전거 노선을 구축한다.

우선적으로 읍내 생활권에서 고인돌 유적지까지 9km 구간에 대해서 자전거

도로 단절구간 연결, 요철·파손 정비 및 자전거도로의 안전시설 확충에 나선다.

고창군은 지속가능한 운영방안을 위해 내년부터 7가지 유네스코 보물을 탐방할 수 있는 자전거 노선 구축과 문화시설 입장료, 숙박시설 할인·자전거 생태관광 투어, 자전거 수화여행 프로그램 추진 등 특색있는 자전거 모범도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고창의 풍부한 유네스코 보물을 활용하여 세계적인 명품 자전거 길 조성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정부의 탄소중립 친환경 교통수단 정책에 맞춰 운곡탐사트 습지, 노을대교, 명사십리 해안도로까지 자전거 관광 코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경매 현장도 스마트 시대... 정읍가축시장 스마트 경매 플랫폼 구축

정읍가축시장이 한 단계 더 진화한 스마트 경매시대를 맞이했다.



순정축협 정읍경제사업장은 지난 8일, 스마트 가축경매시장 플랫폼 2단계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이학수 시장과 임승식 도의원, 순정축협 조합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스마트 플랫폼 2단계 구축으로 경매 방식에 큰 변화가 생겼다. 기존

수기 방식으로 처리되던 경매가 전자식으로 전환돼, 소의 정보가 경매 중 실시간으로 자동 표시되는 시스템이 도입된 것이다.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경매 진행이 가능해졌다.

정읍가축시장은 이미 지난 2022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스마트 플랫폼 1단계를 구축한 바 있다. 당시 휴대전화와 PC를 이용한 원격 거래가 가능하도록 중앙내전광판과 경매용 PC 등이 설치됐으며, 이번 2단계로 한층 더 고도화된 경매 환경이 조성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스마트 플랫폼 구축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경매 실황을 실시간으로 관전하고 원격으로 응찰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가축시장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가축 방역과 감염병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의회, 제355회 임시회 개최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가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355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승인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포함한 각종 조례안 11건, 동의안 3건, 건의안 2건 등 총 16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원진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쌀값 폭락과 벼멸구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대변해 "부안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집행부에 제안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위기극복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김두례 의원 대표발의)'을 채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미지급된 보통교부세를 즉각 지급하고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부안=김석진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